보스톤 한인 교회 소식지 12월호
The Korean Church of Boston(PCUSA)

Vol 45 No.3 2014. 12. 28
편집: 홍보위원회 편집팀
(김한나, 김희수, 박신영, 윤경문 목사)

사랑의 마음 희망의 말

한울타리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12월호 목차

A 쉐마의 밤
A One Minute Time Out
A 사순절 묵상집을 위하여
A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A 쉐마의 밤
A Presbytery of Boston
A 교육3부 위원회
A 보스톤 컴패션마을
A 국내선교 위원회
A 교인위원회
A 홍보위원회
A 집사회
A 상록기도회
A 권사회
A 마리아 여교회
A 남선교회
A 부부청년부
A 그루터기 청년2부
A BNI 선교학 강의를 듣고
A 탁구동우회
A 해바라기 주일학교
A 12월의 엽서
A 나의 신앙 고백
A 중고등부
A 에스더 여선교회
A 새교우 환영반
A KCB 갤러리

쉐마의 밤

올해도 11월의 쉐마의 밤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각 구역과 장로님들이 손수 준비한 Turkey dinner 로 마련된 식사는 한승희 장로님의 carving 시범으로 시작하여 풍성히 차려진 식탁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김수영 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양의 시간이 있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촛불점화와 어린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민호 집사(부청)와 조영지 교우(청년1부), 이혜원 집사(청년2부)의 감사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 청년 1부의 김효인 교우의 현대무용으로 "Flo"라는 제목 자연의 4 계절을 음악과 함께 몸으로 표현하는 특별공연 순서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이 담긴 슬라이드 쇼를 감상하고, 이영길 목사님의 "바울의 감사"에 대한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디모데 후서 1:3-5에서3세대의 자녀로 태어난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 감사해 하는 바울의 심정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시간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 또 나의 옆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옆의 사람,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셔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 메세지>

One Minute Time out

이영길 담임 목사

얼마 전 교우님과 대화 중에 'One Minute Time out'에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옛 교우님 중에 정신과 의사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One Minute Time Out'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 전에 일분간 타임아웃을 한다면, 이웃과 대화 중에 좀 도전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일분간 타임아웃을 한다면, 훨씬 삶이 달라질 것이란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권두언을 쓰면서 다른 관점에서 타임아웃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실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길 원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도 우리에게 'One Minute Time out'을 원하실 줄 압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표어를 갖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분간 멈추고는 이 말씀을 상고하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사순절 묵상집 발간을 위하여…

홍보위원회

"**매년**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손수 쓰신 글과 기도문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여 함께 은혜를 누려 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사순절 묵상집을 마련하여 온 교우님들과 함께 읽으며 아름다운 사순절을 맞고자 합니다.

재의 수요일 (2015년 2월 15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용서, 절제와 금식,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닦으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교우님이 나누어 주시는 묵상의 글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귀한 은혜를 온 교우가 함께 누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식은 기도문, 묵상을 위한 에세이, 기도시 등이며, 분량은 1페이지 정도 (작은 사이즈 책자로 만들 예정임)로 쓰시면 됩니다. 제목과 더불어 사순절 기간 묵상을 위한 성서 한 귀절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한 줄로 된 기도로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김한나 권사 (781-741-2722)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글 보내실 곳: E-mail: kcblent@gmail.com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장로

1. Earth Care Congregation (ECC) Recertification: 9 월에 recertification self-audit 보고서를 PC(USA)에 보내서 이-메일로 Recertification 을 받았습니다. 이소식이 보스톤 노회 신문에 실렸습니다(아래 참조)

2. 10 월 5 일 정평환 주일에 mug (80 개 준비) 사용 권고하고 준비한 mug는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3. 11 월 2 일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New England 및 Kidney Disease Screening and Awareness Program (KDSAP) 주관하고, 정평환 후원으로 Health Fair and Flu Shot 을 가졌는데 25 명의 교인들이 health screening 에 참여, 50 여명이 Flu shot 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이-메일을 보냈고, 본 교회에서는 이정민 장로, 채진병 집사가 volunteer medical doctor 로 수고 했습니다.

4. 시내산동우회 9 월 20 일 Blue Hills, 10 월 11 일 Welch-Dickey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5. Recycle Project- 재활용 bin 사인 및 계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모영, 김동숙, 김상기, 김현주, 김희진, 박선영, 안성완, 이경자, 진정원, 최정환, 한세진, 홍도화

6. 보스톤한인교회에 아이티의 어린이들을 위한 컴패션(Compassion) 마을이 새로 생겼습니다.
모두 57명의 어린이가 결연이 되었고, 두 분은 그냥 후원금만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연에 참여하신 여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준비위원들의 기도보다 두 배 이상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Presbytery of Boston e-Connection

December 10, 2014

Dear Boston Presbytery,

I am writing to inform you, and to celebrate with you, that the Korean Church of Boston was recertified as an Earth Care Congregation b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Environmental Ministries through September 2015. This honor speaks to the great commitment that this congregation has to caring for God’s earth.

To become an Earth Care Congregation, the Korean Church of Boston originally affirmed the Earth Care Pledge to integrate environmental practices and thinking into all facets of their church life. It also completed projects and activities in the fields of worship, education, facilities, and outreach. It continues to grow and deepen its ministry.

The Earth Care Congregation certification is designed to recognize churches that have made the commitment to take seriously God’s charge to “till and keep” the garden.

The Earth Care Congregations program was started in 2010 by PC(USA) Environmental Ministries.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inspire churches to care for God’s earth in a holistic way, through integrating earth care into all of church life. The Earth Care Congregation certification honors churches that

(Page 4에 계속)

Page 3 에서 계속

made that commitment, and encourages others to follow their lead.

In many presbyteries, the congregations are lifted up during a presbytery meeting for prayers of celebration or announcement time, or even re-presented with the certificate that they receive from this office certifying them as a PCUSA Earth Care Congreg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earth care program at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lease contact Elder Jason Kim at 617-780-7205 or jkim@systemic.com.

For more information on the Earth Care Congregations program go to www.pcusa.org/earth-carecongregations.

Please join me in celebrating the wonderful ministry of this good congregation!

Peace and blessings,
Rebecca

Rebecca Barnes
Associate for Environmental Ministries
E-mail: rebecca.barnes@pcusa.org
Web site: http://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environment/

교육 3부위원회

위원장 권복태 장로

소그룹 성경공부 8개 반은 지난 11 월 말 까지 3 개월간 *말씀과 함께*교재로 출애굽기(주제: 노예에서 성민으로) 를 마치고, 이번 12 월부터 3 개월간은 요한계시록 (주제: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의 승리)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AD 81 - 96) 치세 동안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였던 당시에 기록되었으며 요한을 통한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의 중심이 됩니다.
즉, 성도들이 당시의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어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한 묵시적, 종말론적 예언서로서, 일곱 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에는 현재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나약한 온갖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3 장 14-22 절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질책의 말씀 " 네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는 말씀은 물질적으로 부요하여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자랑하지만 신앙에는 미지근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질책임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회개로의 초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구원은 회개 없이는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개가 별로이면 받는 은혜도 별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 다함께 모여 어려워 보이는 요한 계시록을 함께 나누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중요한 도전의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 월 21 일 (일) 에는 금년도 소그룹 성경공부 전체 Group Sharing 이 있겠고, 이 시간에는 각 반별 소개와 함께 지난 4 년 동안 인도자로서 수고하셨던 안드레 반의 박신영 장로님과 요한반의 심윤보 집사님에 대한 감사장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재 작년에 불과 2 명에 불과하던 성경 완독자가, 작년에는 7 명으로, 금년에는 무려 16 명으로 늘어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 느끼도록 도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보스톤 컴패션 마을의 ‘힌 오드레 노우네’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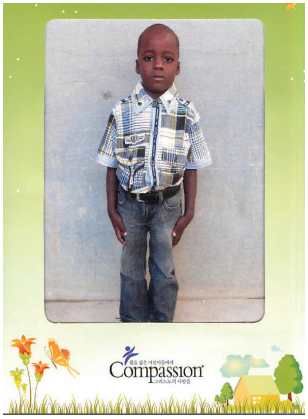
김정선 장로

지난 10월 보스톤한인교회에 컴패션 마을이 생겨서 60명에 가까운 아이티(Haiti)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작은 동네가 생겼습니다. 정말 예상보다 많은 교우님들이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잠재력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몇 일 전 처음 도착한 편지 묶음에 제가 후원하는 Jean Odler Noune (힌 오드레 노우네) 어린이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와서 여기 소개합니다.

저에게는 꼬마 손자가 하나 더 생겼는데, 나이는 네 살, 생일은 9월 18일, 부모가 있고, 여자 형제 둘과 함께 자라고 있고, 주일학교에도 잘 다니며, 축구를 좋아한답니다. 힌의 아빠는 임시로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엄마도 임시직으로 시장에서 일하신답니다. 아이티는 불어와 크레올어를 써서 영어로는 인사를 못하지만, 한글로 써서 보내면 고맙게도 컴패션에서 번역해서 보내 줍니다.

후원자가 처음으로 어린이에게 보내는 간단한 편지도 써야 해서 저도 인사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 힌, 이렇게 너를 알게 되서 아주 기쁘고,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 감사 드린단다. 우리는 보스톤에 사는데 너만한 손녀딸이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야, 우리는 힌과 네 형제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께, 사랑한다” 힌의 차렷 자세의 사진을, 종이로 만든 사진액자도 같이 와서 사진을 접어 넣어 책상 앞에 놓고 자주 보고 위해서 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동봉합니다.



첫번 패키지 안에는 ‘꿈을 키우는 희망 나누기’ 후원자 가이드라인도 들어 있고, 아이티 센터와 나라소개가 있는데, 힌이 사는 곳은 수도 포르토 프랭스 (Port-au-Prince)에서 동북쪽에 있는 론시 평원지역이라 하네요.

인구 약 3,000명, 대부분 크레올 언어를 사용하는 흑인들로서 시멘트와 판금지붕으로 지어진 집에서 생활한답니다. 옥수수, 콩, 빵, 쇠고기, 쌀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침, 열병과 설사병이 흔하고, 보통 한 가정이 약 21,000원으로 한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의료와 교육기관이 또한 필요하며, 적절한 식수, 지역 사회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군요. 저희가 보내는 후원금은 힌에게 성경공부, 의료검사, 친목행사, 놀이 활동, 학업지원, 교과서와 교복을 제공하고, 부모님을 위해 학부모위원회와 각종 교육회 시간도 마련한답니다.

아이티는 천주교 80%, 기독교 16% 이고, 화폐 단위는 구르드 (HTG), 15세 이상의 문해율은 대강 53% 정도, 식수와 공중위생이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평균 수명이 53세 정도,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약 55%라 합니다.

제가 첫 편지를 보내면 우리의 새 손주 힌으로부터 편지가 올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후원자님들이 자기 첫 번 소개를 보내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아이티의 60명에 가까운 어린들로부터 사랑의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보스톤 컴패션 마을이 수많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좀 시끌벅쩍 하겠네요. 감사드립니다.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오아시스 Cafe Music Night 소식:

10월/ 12월 부르클라인 지역 주민을 섬기는 간접 선교의 일환으로 음악을 선사하는 Oasis Café Music Night이 10월, 12월, 두차례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었습니다. 10월 5일 오후 7시에는 유대인 음악그룹인 Klezmer group(Mike Neufeld (saxophone), Lisa Geller (bass and vocals), Steve Rauch (clarinet), Sidney Catlett (drums), Phil Brown (keyboard), John Bassett (cornet), and Tom Rubenoff (trombone)) 이 "Too Klez for Comfor" 란 제목으로 멋진 음악을 선사하여 주었습니다. 약 90여명의 부르클라인 주민들이 참여하여 음악을 즐기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웠습니다.

또한, 12월 6일(토)에는 Cuban Music group인 Di eVana를 초청하여 World music night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이신 김지희교우가 한 멤버이기도 한 이 Di eVana group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공연 연주자로는 Violin : Carlos Silva, Violin: Jihui Kim, Cello: Roman Soto, Bass: Irais Brito Hierrezuelo, Percussion: Takafumi Nikaido 이었습니다. 이날 Oasis Café music night에 참석한 분들은 흥겨운 Cuban Music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음악 연주후에는 국내선교위원회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refreshment를 즐기면서 친교를 나누웠습니다.

한해동안 Oasis Café music night을 위해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주신 국내선교위원들-매 행사때마다 포스터와 사진, stage set up을 도와주신 유승오, 김진홍, 최정환 집사님과 refreshment를 위해 늘 풍성한 다과를 만들어주신 김동숙 집사님, 이선영장로님, 진행과 홍보를 도와주신 이혜원 집사님과 윤경문 목사님, 그리고 늘 행사에 참여하시여 응원해 주신 이영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Brookline First Light Festival (11월 20일 (목)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Holiday season이 시작될때 열리는 Brookline first light festival에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하늘소리 사물놀이팀이 참여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물놀이 연주를 하여 주셨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은사공동체 사물놀이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

*** 출생: 축하드립니다 ***

- 정성욱/김기연 교우 가정 득녀 (예진, Evelyn)
- 김태훈/육혜진 교우 가정 득녀 (지서, Gloria)
- 송경수/사공수인 교우 가정 득녀 (가은, Grace)
- 문형근/이지영 교우 가정 득녀 (라희, Lottie)
- 이관화/정혜정 집사 가정 득녀(세연, Anita)
- 김상기/한혜성 집사가정 득남 (Jonathan, 남헌)

***전출**: 차주혁/김난희 집사댁 (뉴저지)

*** 12월 21일(성탄주일) 세례자:**

성인세례자: 김준범, 오연수, 박인경(견신)
유아세례자: 김 준(김준범/박인경), 김지서(김태훈/육혜진), 김현지(김원희/서재영), 노주원(노현철/노현미), 송가은(송경수/사공수인), 최이현(최정규/심진희)

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1. 2015년 사순절 묵상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교회 웹사이트 홈페이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CP Online Solutions 회사를 통해 계속 되고 있습니다.
3. 2015년 교회달력을 500부 제작해서 12월 첫 주부터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회

회장 최현구 집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전년도 회장단으로부터 집사회 살림을 이어 받아 임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이천 년 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안고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울타리의 지면을 빌어 올 하반기 동안의 집사회 소식을 교우님들께 전해드립니다.

9월 27일에는 장로님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각 부서에서 약 30여명의 교우님들이 참여해주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항상 제일 어려운 일을 도맡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엄재관 장로님과 남선교회 회장님, 집사님들, 그리고 이번에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 준 청년 1, 2부 형제자매님들에게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다음날인 9월28일 (주일)에는 상록기도회 야유회가 가까운 Larz Anderson Park에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모임에 작은 일로나마 도움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12월 13일에는 집사회 정기총회 및 2014년도 하반기 제직회가 열렸습니다. 집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집사회 살림을 돌아보고, 새로운 임기를 맡아 섬기게 될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정재원 집사님이, 총무에는 이재익 집사님이 선출되어 올해에도 평화적인 (?)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의 자취가 하나 둘씩 그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섬기신 동역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새해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상록 기도회

회장 장현숙 권사

상록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Community Center에서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Larz Anderson Park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는데, 집사회에서 매년마다 상록회 어르신들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른 대접을 위해 집사회와 여러 교우님들이 신경 써 주시며, 따뜻한 섬김의 마음으로 풍성한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임 때마다 상록회 회원들은 특강을 통해서 유익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신영각 집사님이 특강을 해 주셨고, 10월에는 한문수 집사님을 모시고, 한국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집사님께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상록회에 찬조금도 해주셨습니다.
11월에는 이정민 장로님을 모시고,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헬스 케어와 메디 케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이정민/이정희 장로 댁에서 풍성한 음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록회를 위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정성스런 식사도 제공해 주시는 부서와 교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상록기도회의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공경희 권사, 부회장: 엄인숙 권사, 총무: 이숙재 권사

상록회 문단

이재환 집사

[소망]

한 여름 초록 나뭇잎들
늦 가을 되어 황적색으로 변했구려

너를 보고 나를 살펴보니
내 검었던 머리에 백설이 내렸구려

팔십에 이르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드립니다.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세상 인연 다 버리고
천성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죄인 받아 주시어
내 본향 찾게 하옵시고
주님 뵈옵게 하옵소서

권사회

회장 이계순권사

매달 모이는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서로 얼굴 한번 더 가까이 뵙고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끔 맛있는 별식을 몇 분 권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큰 안건이 없는 달에도 어김없이 전달사항과 기도제목이 생겼습니다.
7월에는 윤목사님의 생일을 처음으로 축하해 드렸고, 9월에는 이성혜 사모님의 생일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9월에 6명의 권사, 김영미, 김정림, 김한나, 서명숙, 신미송, 이경자 등이 임직되셨습니다. 그 후 10월 권사회 모임에서 간단한 음식 준비를 하여 신임권사님들을 환영하였습니다.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9월 16일에는 신좌경 권사님의 만 100세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10월에는 교역자 및 신학생, 주일학교 교사와 가족들을 위한 오찬이 권사님들의 수고로 강영숙 권사 댁에서 있었습니다. 맛있고 푸짐한 음식과 안락한 분위기 모두 감사 드립니다.
11월 권사회 총회에서는 2015년 새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 김춘미, 부회장 김용희, 총무/ 회계 김정림
고문 이성혜 사모님, 이숙재, 이계순

집사님들이 수고하던 성만찬 준비를 다시 권사회가 넘겨받았습니다. 늘 하듯이 송구영신 예배 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찬송하려 합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김향인 집사

지난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는, 보스톤 관광후본 교회를 방문한 커네티컷 노인회 50 여명에게 정성의 저녁 대접을 하였습니다. 맛있는 조개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의 한정식으로 보스톤한인 교회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에 접대할 청년부 식사 준비와 소 그룹 및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의 점심까지 함께 준비하느라 마리아 회원 분들의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회원들과 함께 하는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통하여 함께한 회원 분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5일(토)에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주관으로 가진 제24회 선교대회에 4명의 여선교회원(김용희, 김한나, 이경자, 조순래)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장소: 한울림교회 (담임목사 김원재), Bayside, NY
강사: 안맹호 선교사 (북미원주민 선교사역)
강의 1-선교적 눈을 가지자(마 6:22-24)
강의 2-선교적 마음을 가지자(빌 2:5-11)

12월 첫 번째 주에는 2015년을 봉사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에서 윤선미 집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라는 공동체로는 못할 것이 없음을 경험 할 수 있었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함께하는 모든 회원님들의 협력과 사랑으로 멋진2015 마리아 여선교회를 기대합니다.

남선교회

회장 이문영 집사

남선교회는 모든 행사가 상반기에 치중하다 보니 10월11월에는 큰 행사 없이 지냈습니다.

년 초에 시작되었던 윷놀이부터 모든 행사를 되돌아보면 작은 것에부터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두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새 임원진이 선출 되었습니다.

회장: 김진기 집사
부회장: 최정열 집사
서기: 지훈 집사
회계: 안성완 장로
감사: 권복태 장로.

부부청년부

회장 이지훈 집사

10월: 1) 19일 Saugus에 있는 Break heart Reservation에서 가을 소풍을 가졌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엄마 아빠 아이들 함께 1시간 산을 오르고 내려오니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졌답니다. 중간에 놀이터와 예쁜 저수지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산책로가 있었나' 싶어 다음을 기약하며 즐거운 소풍을 마쳤습니다.

11월: 1) 16일 부부청년부 헌신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부부청년부와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서야할 자리를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015년 또 한 해를 섬길 회장단을 투표로 선출하였답니다.
2) 28일 땡스기빙파티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각 가정마다 갈고 닦은 요리솜씨를 맘껏뽐낸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들의 입을 즐겁게 하여주었습니다. 식사 후 가정마다 일년간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12월: 1) 14일 4개월의 유학체류를 마치고 UAE로 돌아가는 정기철/김민주 가정을 위한 환송회를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벌써 많이 정이 들어버린 우리들은 내년의 재회를 소망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답니다. 2) 27일 뉴햄프셔의 교외에서 부부청년부 연말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번의 맛있는 요리자랑과 선물교환, 그리고 한해를 돌아보는 간증과 놀이 등으로 2014년 한해를 따뜻하고 운치있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부청년부 새 임원진:
회장: 이지훈/정은아 집사, 부회장: 박상철/이혜원 집사, 총무: 최정규/심진희 교우
* 아래 사진은 11월 땡스기빙파티 때 사진입니다.

청년 2부

회장 이혜원 집사

청년 2부는 정기적으로 금요 모임을 통해 예배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주일에는 누가 복음서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교우님들의 사랑의 손길로 준비해 주시는 점심식사를 나누고, 3개의 조로 나누어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자는 표어 아래 실천적인 모임을 가지고자 노력하며, 11월에는 탈북자를 위한 기관 LINK를 국내선교위원회와 함께 host하였습니다. 또한, 토요 봉사로서 Homeless Shelter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체 행사로는 10월에 NH White Mountain에 단풍산행과 더불어 새 교우 환영회를 가졌고, Thanksgiving 날에는 윤 목사님댁에 모여 한 해의 감사를 함께 나누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11월 말에는 북 토크 행사를 준비하여 신앙서적을 읽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월에 북 토크 follow up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12월 말에는 송년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늘 청년부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11 청년 2부 새신자 환영 단풍놀이
10/24 청년 1,2부 금요 연합예배
10/26 청년부 주일 헌신예배
11/1 청년2부 LINK 행사 참여
11/27 Thanksgiving Dinner
11/30 청년2부 북토크
11/8,12/13 Homeless shelter 토요봉사

BNI 선교학 강의를 듣고

고경아 집사

하나님은 누구를 선교하기 원하셨나...

흑사병이 저주를 퍼부었던 위기의 순간에도 순교라는 절정적 믿음을 과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300여년의 지하예배를 마감하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복음전파라는 그 근본적인 사명감에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선교하기 원하셨을까를 깊이 고뇌하면서...

13세기 수도원운동에서 처음 거론되며 16세기 중반 무렵 예수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선교라는 단어는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친근한 의미로 다가선 생활어인 셈이다.
순교의 역사라고 해야 바람직할 로마제국시대의 선교와 야만족들의 침공을 받질 않아 늘 평화의 시기를 조성했던 유럽은 그 여유만만가운데 왕들의 개종이 줄을 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 가능케 하였다.

이렇듯 승승가도 위에 놓여있던 기독교교회는 갑자기 생성되어 확산해 나가던 전투적인 이슬람교와의 갈등으로 어두운 선교역사가 기록되어지기도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이러한 이슬람국가를 포함한 대륙에도 마침내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이례의 역사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파간의 대화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으나 27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단지 3퍼센트의 신자만을 보유하는 아시아와 낙후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아프리카...
카톨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남 미국들과 종교교육은 매우 뜨겁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럽 등을 향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피와 땀과 물을 선교지 곳곳에 아름답게 수놓으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신 복음 알리는 일에 귀한 헌신을 드리고 있다.

신학의 꽃이라고 불리며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슴에 큰 경고를 아끼지 않는 선교...그렇다면, 이 녹녹하지 않은 선교에 대한 학습을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우선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구스타프 바르넥 선교학자는 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독교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조직화를 지행해야 함을 가르치셨고 집안 대대로 선교사 가족의 일원이었던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 선교사는 예수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은 복음전파를 강조하셨으며 하와이 나병촌에 스스로 몸을 던지시고 선교지삶의 처지에 그대로 동화되어 성육신적 선교를 실천하시다가 결국 자신도 그들과 같은 병을 앓는 환자로 생을 마감하신 다미안 신부님은 선교라는 단어를 가장 우선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하신 분이며 모두에게 선교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있어 선교라는 의미는 어떤 준비와 방식을 중시해야 할 것인지가 큰 물음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실천선교사들의 이론과 행동을 존중하고 혹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들과의 갈등을 인내와 설득으로 해결하여 그들이 신뢰를 가지고 복음을 안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초기 기독교의 특징인 사랑과 미덕이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만이 그대로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선교를 위해 철저히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검증된 사람들만이 파송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는 일이 선교를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임을 깊이 인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500여년 전 그때에, 만약 그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득 안은 제자들이 그 분의 선하신 향기를 이 미국대륙에 먼저 퍼트렸다면 지금의 인디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방향 속에 놓여 있었을 것인지...
며칠 전 Columbus Day를 보내면서 스친 이 물음은 선교학 수업 후 내가 받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다.

'선교는 정말 세심하여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고 강의 내내 감동을 쏟아내신 김건철교수님과 짧은 학기였지만 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따뜻했으며 때로는 진지했던 25명의 우리반 교우들에게 안부를 여쭈며 모든 인류들과 사랑으로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려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탁구 동우회

회장 권복태 장로

[창립기념 제 2 회 전교인 탁구대회]

지난 10 월 26 일 2 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가진 전교인 탁구대회는, 새로이 창설된 교인 2 부 위원회 (위원장 이 정민 장로)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힘써 한 마음으로 연합함으로, 이제는 이 탁구대회가 명실공히 연령과 성별을 넘어서 전 교인이 참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우승자도 귀하였지만, 비록 일회 전에서 탈락하였더라도 참여해 주셨던 분들은 더욱 귀하였고, 비록 시합에는 참가치 못하였지만 관전하며 응원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분들은 더욱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한 그릇 국밥에 김치 한 조각도 꿀 맛처럼 달았고, 금은보화는 아니었지만 함께 나눈 선물들도 사랑이 듬뿍 묻어있었기에 더욱 값졌습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어 준비해 주신 손길들과, 사랑의 헌금을 보태어 주신 한분 한분들께 감사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뒤로한 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는 (보스톤 탁구 협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상품도 협찬해 주셨으며, 방문해서 격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에는 Brookline 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에서 대표자가 직접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관전한 후 내년 4 월경 친선 경기를 갖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본 교회 탁구 동우회는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부터 친교실에서 연습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위한 Robot Ball Machine 도 준비되어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가 있으므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수영 전도사님)께 신청, 카톡방에 초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3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모든 지체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귀한 교회로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래는 당일 수상자 명단이며 총 58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우승과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구분 복식 여자 단식 남자 단식

우승: 이문영 집사, 김철 집사,
　　임현실 집사, 이문영 집사
준우승: 최준영 집사, 유승오 집사,
　　이혜숙 집사, 권복태 장로
3 등: 김건철 목사, 김수영 전도사, 이경자 권사,
4 등: 박신영 장로, 김영순 집사, 고경아 집사
장려상: 엄재관 장로, 김진기 집사, 김영순 집사
　　유승오 집사
감투상: 홍경자 장로, 김철 집사

해바라기 주일학교

김수영 전도사

9월 초에 진급주일을 보내면서 한 학년씩 올라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지난 3개월 사이에 그 키와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쑥쑥 자라났음을 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학년의 자리가 어색했고, 그 학년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의젓하게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헌금 바구니를 들기 조차 힘겨워 보이던 아이들도 이제는 거뜬히 헌금위원을 해내고, 봉헌기도도 드립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시간은 어른들보다 천천히 지나가나 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어른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빠르게 성장하며, 더 큰 변화들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2014-15학년도에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교회(벧전 2:9)"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14 학년도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중보자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공부하였다면 이번 학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지난 가을을 보내며 약 7주 동안 성경의 인물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과 성공, 실패와 회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맞이하여 다가올 성탄절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웁니다. 대강절 촛대에 촛불을 밝히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리라는 다짐을 합니다. 초에 붙은 불이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영을 더 맑게 하는지, 매 주일 초에 불을 붙일 때면 우리 아이들의 동그란 눈동자가 더 커지고 분위기는 한 것 숙연해집니다.

지난 가을 새 학기와 새 학년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생님들의 빈 자리가 생겼는데, 2-3주의 주보 광고를 통해 여러 교우님들께서 헌신의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김종희, 김효인, 심수연, 이유진, 이현정, 장봉준, 황지현 선생님께서 주일학교를 함께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초에 있었던 학부모 회의에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 모여 더 효과적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일학교-학부모 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돕기 위한 편지가 매주일 예배 후에 학부모님들께 이메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가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 뒤에 수 많은 손길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참 많은 손길과 땀, 눈물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또 환한 음으로 해바라기를 기르는 영적 정원사가 되어주신 모든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여러 번 사진으로 담아주시는 김상기, 유승오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12월의 엽서

시인 이해인

또 한 해가 가 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 밖엔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이를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할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성인세례 간증문

오연수 교우

<나의 신앙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눈물겨운 고백이었다. 자기를 핍박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말했다. 그 경험 뒤에 숨어 있는 깊고 깊은 비밀의 세계를 안고 말이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깨달았고,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내 안엔 불 신앙적 사고 관이 가득히 자리하고 있었다.

예수와 성경은 내게 제우스와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산신령과 민화 전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기에 성경을 들어 예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내게 허구를 들어 증명하려는 것과 같았고 굳이 알려 고도 하지 않았다.

2013년 12월24일 처음 교회에 나아갔을 때 나를 가장 감동 시킨 사실은 "선택" 이였다.

Page 14 에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에 감동을 주었는지, 그 사실 자체 나로 하여금 모든 부정과 불가능과 모순과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 후 난 신앙의 중심에 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 왔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신앙의 외형적인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말씀과 기도, 교회생활과 헌신, 선행과 의, 이런 주제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식에 근거한 신앙은 늘 변동의 폭을 갖게 하였다. 무언가가 잘될 때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무언가가 막힐 때엔 절망 그 자체가 반복되었다.

난 그 후에 행동이 신앙의 본질 값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신앙은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사랑,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 존재의 자리이다.

내가 누구로부터 있는지? 내 생명이 엄마로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을 있게 하신 생명의 주가 계심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안겨 주었다. 난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창조주가 가진 심오한 진리를 담는데 집중하였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43장)"
이사야 성경 말씀은 나를 황홀하게 하였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발전은 나로 하여금 주 예수의 깊고 깊은 은혜 영성에 빠뜨리게 했다. 영원히 나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주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 주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은 내 가 행동 양식에 얽매일 이유가 왜 없는지, 내가 신앙 안에 산다는 말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말씀 인지를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 주셨다.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깊은 자리이다.하나님은 내게 주 예수를 주셨다.주 예수는 나의 ~ 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다. 주 예수는 내게 오시어 나를 ~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 생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와 함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크리스천이 되고자 한다.
크리스천은 내가 존재함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존재임을 믿는 자들이요,
그 나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위해 내게 오신 주 예수를 모신 자요, 주 예수는 이제로 영원토록 내 존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요, 내 존재의 자리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다.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주 예수의 진리를 가득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에 감사가 넘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런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만난 복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는다. 그러나 동일한 세계를 가진 자로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나의 작고 보잘 것없는 삶에 머리가 숙여진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 가운데 이제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세례식을 거쳐 믿음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아세례자 신앙간증문

김 준 (김준범, 박인경)

먼저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아들 준이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으로 안내 받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준이의 부모인 저희도 준이의 세례를 위해 때를 맞춰 꼭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일념이 있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위해 한날을 예비하여 모두가 함께 세례식을 받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축복임을 믿습니다.

준이는 단지 사랑스러운 아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더 공고히 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가 준이가 교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예수님의 길에 바로 나가갈 수 있도록 진심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바라옵건데 저희 준이가 그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한 길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고, 또한 준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지서(김 태훈, 육 혜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지서의 유아세례를 앞두고 다시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간증문을 쓰기 전 지서의 임신과 출산 후를 되돌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려는 마음 가짐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는 셋째라는 부담감과 온갖 걱정들이 앞서 임신이라는 축복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니 감사하고 기뻐해야겠다는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년생 두 딸을 데리고 힘든 임신 기간을 지내면서도, 지서가 세상에 빛을 보고 육아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힘들 수도 있는 시간들을 비교적 순조롭게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때때로 연년생 세 딸을 양육하면서 지치고 불평 불만을 하며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때마다 이 성경구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짐으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아이들의 본보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그 마음 항상 기억하고 아이를 위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마칩니다.

교육 3부 성인성경공부 연말 Group Sharing 모임

권복태 장로

12월 21일(성탄주일) 오전 10:30분부터 Community Center에서 주일 성경공부 sharing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해동안 성경공부를 같이 해오면서 하나된 성경공부반들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나누고, 다양한 창의적인 모습으로 신앙 간증과 나눔,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차례로는 한 해동안 결석 없이 개근을 하신 박양신 집사님께 개근상을 드리고(총 4년동안 개근), 올해 성경책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을 표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각 반의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안드레반에서는 개그코너를 페러디하여 신앙의 다짐을 하였고, 다니엘반에서는 각자의 신앙적 소망을 발표하고, 이재환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반에서는 캐롤을, 빌립반에서는 색깔 성경, 부부청년부반의 간증, 강의식 성경공부반에서는 김학주 교우가 간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몇년간 수고해주신 박신영 장로님과 심윤보 집사님께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감사장을 전달하였고, 성경공부 인도자 교육을 이끌어 오시고 도움주신 이영길 담임목사님과 윤경문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짧은 모임을 통하여 소그룹 성경공부 전체가 한 공동체로 어우러지며, 4년전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 보면서,내일을 위하여 다시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순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웃으로 파도처럼 퍼져 나가기를 기도드리며, 이 행사 때 처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 봅니다. “ Merry” “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12월 24일(수) 이 땅에 평화와 소망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이브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특별 순서로 유년. 초등주일 학교의 신나는 Praise & Dance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로 드리기 위해 찬양과 댄스를 열심히 준비하여 드렸고, 예배 참석한 분들의 마음을 기쁘고 환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담임목사님의 “목자들의 찬양” (본문: 누가복음 2:8-20)이란 제목의 성탄 메시지가 전해졌고, 성탄 특별 찬양으로는 찬양대 1부, 2부 연합으로 John Rutter의 곡 7 Carol를 기악팀과 더불어 불렀습니다. 조유미 집사의 “O, Holy Night” 이 울려 퍼질 때는 모두가 Christ’s candle로부터 이어진 촛불을 밝히며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자 소망하며,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중고등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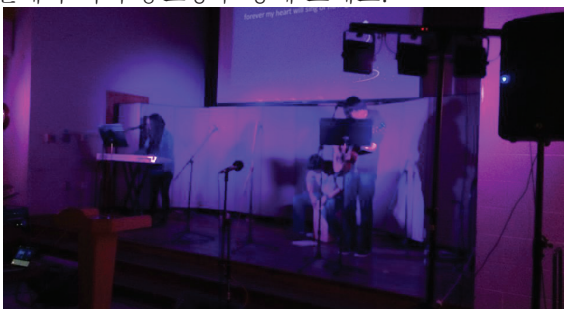
황동준 담당 집사

12월 20일에 제5회 커피하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BNI 학생들과 함께 친교하며, 음식과 자기의 탤런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학생들을 참가를 위함이였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며 꾸민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를 알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11월 9일에는 Frisbee tournament 가 있었습니다. BNI 학생들과 시합을 해서 저희 중고등부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승리한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은 주님의 친구들을 만난 던 것이었습니다. 10월 12일에는 저의 Ransom 중고등부 field day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Pierce Park 에가서 농구와 배구 게임을 하였습니다.

10월달부터는 Daniel Kim 전도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을수 있도록 매주 강 재래미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못들은 친구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주중에 다시한번 들으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중고등부는 face-book 을 통하여 나눔의 삶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현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생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면 저의 중고등부에 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도 다 환영하니 언제나 저의 중고등부 방에 오세요.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이성희 집사

2015년도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 곽서영, 부회장 : 최정우
회계 : 김경태, 서기 : 하은혜

* 2015년도에 다과와 헌화로 섬겨주실 분들은 게시판에 Sign-up 부탁드립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한울타리를 애독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15년도 주님의 은혜로 만사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교우 환영반

윤미자 집사

2014년 9월 새교우 환영반은 7일, 14일, 21일 10:30~11:30am Parlor에서 3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9 월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마치신 교우는 손승우/이미영, 최지상/김현선, 백승환/김수진, 이석호/전재영, 최순강/조나영 가정입니다.

김문소 장로님께서 9월 새교우 환영반 3주 교육에 함께 해 주셨고, 교육을 마친 후 김진홍/김경태 집사님 댁에서 새 교우들을 초대해 환영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승우/이미영 교우님 가정: 두 분 모두 Computer Science를 공부하셨고, 손승우 교우님은 시카코에서 Umass Lowell 교수로 부임하면서 지난 8월에 보스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미영 교우는 현재 시카고 대학 박사과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 4학년 Ashley(지민), Daniel(지욱) 두 자녀가 있으며, 현재 Westford에 거주하시고 북서2구역에 소속되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상/김현선 목사님 가정:한국에서 지난 8월에 보스톤에 오셨는데 최지상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이며, 현재 Boston College에서 ThM 과정 공부 중에 있습니다. 김현선 사모님은 한국에서 생물교사로 재직했습니다. 현재 Brighton에 거주하시고 자녀로는 2살 된 딸 지유가 있습니다.

이석호/전재영 교우님 가정: 이석호 교우님은 작년 10월에 먼저 보스톤에 오셨고, 올해 4월에 가족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교재하며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이 바램이라고 합니다. 현재 Wayland에 거주하시고, 자녀로는10, 8살인 Grant(상진), Mischa(해인) 이 있으며 중서2구역 소속입니다.

최순강/조나영 교우님 가정: 최순강 교우님은 현재 Dana-Farber Cancer Institute, Harvard Medical School의 Postdoc과정에 있고, 조나영 교우는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으며 현재 1부 예배 시 현악 팀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Chestnut Hill에 거주하시고 자녀는 2살된 딸Irene(지인)이 있습니다.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백승환/김수진 교우님 가정: 백승환 교우님은 8살에 이민 오셔서 대학 졸업 때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사셨습니다. 한국에서 3년 직장 생활하셨고 현재 MBA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 교우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시다 결혼 후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하의 자녀는 아직 없으며 부부청년부 소속이십니다.

9월에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마치신 교우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에 오신 새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인위원회에서는 새교우 환영반을 통해 교회를 알고 서로를 알아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윤미자 집사(mijayun@hotmail.com, 978-987-7388)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BOSTON NEHEMIAH INSTITUTE

성탄 이브 음악예배

동북대회 여선교회 43회 선교대회

LiNK

청년 2부 가을야유회

Sunflower Sunday School

11월 쉐마의 밤

제직회